

제주신화 속 동·식물 상징읽기

신혜금*

차례

- I. 서론
- II. 생명의 출현과 자연물의 기원
- III. 식물들이 갖는 상징
- IV. 동물들이 갖는 상징
- V. 결론

I. 서론

원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화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소재는 인간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간 주위에 있는 동물과 식물, 자연환경일 것이다. 고대인들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신화는 신화 자체가 갖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상징을 필요로 한다. 이때 그 신화가 필요로 하는 상징을 가진 동물과 식물이 신화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그로 인해 신화는 그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된다.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동물과 식물에 대해 경험적 인식과 주술적 상상을 바탕으로 한 형상화는 원시사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주제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제주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식물들이 어떤 상징을 가지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연구자가 분석틀로 사용한 것은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이다. 융은 “상징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심적 에너지가 그 총체적 값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하는 것”¹⁾이라고 이해한다. ‘꿈’, ‘환상’ 등에 나타나는 像은 정신에너지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며, “상징에는 표현하는 특징(expressive character)과 인상받는 특징(impressive character)이 있다”고 하였다. 즉 상징은 정신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像²⁾으로 표현한 것이며, 인간 무의식과 의식을 드러내는 매개자라 볼 수 있다.

제주신화에 등장하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다양한 무수한 상징들의 출처, 상징들의 자궁은 어디인가?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공동체간의 신화와 구전된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형식의 상징이 있는데, 그 모양과 형태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상징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제주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식물의 像을 통해 탐구해보았다.

II. 생명의 출현과 자연물의 기원

1. 생명의 출현

창세신화인 천지왕본풀이에 보면 천지개벽과 혼란했던 자연질서와 사

1) 로렌스 W. 자피, 『융심리학』, 교육과학사, 1985, 125쪽.

2) 상징은 비유도 아니고 기호도 아니고 의식을 초월한 내용의 像이다. 상징 안에 묻혀 있는 의미가 모두 들추어져내어 우리가 이제는 합리적으로 알 수 있으면 언제나 상징은 기호로 변화될 수 있고, 생명을 잃은 상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순상징(authentic symbol)은 철저히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징의 합리적인 부분을 의식할 수 있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오직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상징은 정신전체 즉 의식부분과 무의식 부분이 어떻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준다. (로렌스 W. 자피, 『융심리학』, 교육과학사, 1985, 124-127쪽)

회질서가 정리되어 간 과정을 보여준다.

태초에 천지는 혼돈으로 있었다. 하늘과 땅이 금이 없이 서로 맞붙고, 암흑과 혼합으로 뭉쳐 한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혼돈 천지에 개벽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중략) 하늘의 머리가 자방으로 열려 하늘과 땅 사이에 금이 생겨났다. 이 금이 점점 벌어지면서 땅덩어리에는 산이 솟아오르고 물이 흘러내리곤 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는 점점 분명해져 갔다.³⁾

천지왕본풀이의 시작부분에 묘사된 것처럼 태초에 한 덩어리로 있었던 천지가 분리되어 오늘날과 같이 떨어졌다는 생각은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개의 분류 범주가 기반이 되어 있다.

한덩어리였던 것에서 금이 생겼다는 것은 '공간'이라는 범주의 발생을, 암흑으로부터 먼동이 싹트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범주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기본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천지개벽의 주체적인 행위자는 없다. 이미 있는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으로서 서양의 신처럼 하늘과 땅을 분별하는 행위의 주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⁴⁾

“이때 하늘에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수(合水)되어 음양상통으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먼저 생겨난 것은 별이었다. (중략)

그러나 아직 암흑은 계속되고 있었다. 동쪽에는 청구름이, 서쪽에서는 백구름이, 남쪽에서는 적구름이, 북쪽에서는 흑구름이, 그리고 중앙에선 황구름만이 오락가락하는데, 천황닭이 목을 틀고, 지황닭이 날개를 치고, 인황닭이 꼬리를 쳐 크게 우니, 갑을동방에서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⁵⁾

3)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11쪽.

4)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92쪽.

5) 현용준, 앞의 책, 11-12쪽.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이어서 혼돈상태인 우주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분명해지면서 산이 솟아오르고 물이 흘러내린다. 가장 먼저 생겨난 별들이 동서남북과 중앙으로 자리잡고 이어서 오색의 구름들이 자리잡는다. 음양오행사상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동서남북의 각 방향에 청, 백, 적, 흑색을 배열하고 중심의 색을 황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방향을 분별할 줄 아는 공간적 인식과 오랜 시간 동안 자연에 대한 관찰에서 얻을 수 있는 색채적 감각을 의미한다.

살아 있는 생명체로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천황닭'과 '지황닭', '인황닭'이다. 닭은 날개를 갖고 있지만 지상에 사는 새이다. 그것은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존재이며, 닭이 운다는 것은 하늘과 연결하는 곧 밝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연에서 문명으로의 이행을 알리는 신호인 것이다.

계속해서 천지왕본풀이를 읽어나가다 보면, 주목할 만한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천지의 혼돈이 아직 바로 잡힌 것이 아니었다. (중략) 그뿐 아니라 이때는 모든 초목이나 새, 짐승들이 말을 하고, 귀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어 사람 불러 귀신이 대답하고, 귀신 불러 사람 대답하는 그야말로 혼잡한 판국이였다. 이러한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 천지왕에게는 항상 걱정이였다. (중략) 초목과 짐승이 말하는 것은 松皮(송피)가루로써 놀렸다. 송피 가루 닳 말 닳 되를 세상에 뿌리니 모든 금수, 초목이 혀가 굳어져서 말을 못하고 사람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다음은 귀신과 생인의 분별을 짓는 일이었다. 이것은 그 무게로써 가르기로 했다. 저울을 가지고 하나하나 달아서 백 근이 차는 놈은 인간으로 보내고, 백근이 못되는 놈은 귀신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자연의 질서가 바로잡혔다.”⁶⁾

처음에는 초목과 동물이 전부 인간의 말을 하였다고 나온다. 이것은 태초에는 생명이 모두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별왕에 의해 세상의 혼란이 정리되면서 인간만이 말을 하게 되

6) 현용준, 앞의 책, 12-20쪽.

었는데, 그것은 인간이 점차 문명을 갖추고 자연을 지배해 가면서 동물보다 우위에 선 문명적 존재가 되었음을 뜻한다.

2. 자연물의 기원설

제주신화를 살펴보면 동식물의 기원이 인간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사유한 흔적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벽력같이 명을 내리고 수명장자의 으리으리한 집을 일시에 홀랑 불태워 버렸다. 불탄 자리에 사람이 죽어 있으니, 그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굿을 했다. 그래서 화재에 타 죽은 원혼이 신당에 들어서서 얻어먹는 법이 시작되었고, (중략) 수명장자의 아들 딸에게도 엄벌을 내렸다. 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약하게 학대했으니, 꺾어진 손가락 하나 영덩이에 꽂아서 팔벌레 몸으로 환생시켜 버리고, 아들들은 마소의 물을 끓여 목마르게 했으니 술개의 몸으로 환생시켜 비온 뒤 꼬부라진 주둥아리로 날개의 물을 훔아 먹도록 했다.”(천지왕본풀이 중에서)

천지왕이 벼락사자, 우레장군, 화덕진군의 도움으로 수명장자를 정치하는 것은 기후를 관장하는 신격이라는 특징을 보여주며, 수명장자의 집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은 불의 기능이 모든 악(생명)을 파괴시켜버리는 의미(정화)로 풀이되는데, 수명장자를 정치한 후 그의 아들, 딸에게도 벌을 내리는데, 딸들은 팔벌레, 아들들은 술개가 되었다고 나온다. 이 부분에서 고대인들이 자연물의 기원이 인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

천지왕본풀이에서만 그러한 사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신화, 문전본풀이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7)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칠형제가 달려들자 제데귀일은 도망갈 길이 없어 벽장을 뜯어 변소로 도망가 디딜팡에 목을 매어 죽었다. 칠형제는 원수를 갚는다고 제데귀일의 사체의 여러 부위를 끊어 던지니 두 다리는 변소간의 디딜돌, 눈두덩은 천리통(망원경), 머리털은 해조류, 손톱 발톱은 굴뚝, 배꼽은 굴뚝이, 하문은 전복 등이 되었다.”⁸⁾

이것도 역시 자연물뿐 아니라 사물의 기원이 인간의 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유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조류나 전복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은 신이 인간을 징치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이다.

차사본풀이와 세경본풀이에도 동식물의 기원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염라왕은 과양생이 부부의 팔 다리 아홉에 소를 묶어 동서로 몰아가게 해서 찢어 죽인다. 남은 살은 가루로 빻아서 날려 보낸다. 악한 사람의 몸에 나온 것이라 모기, 각다귀로 환생하였다.”

“자청비의 등장으로 문도령과 결혼하기로 했던 서수왕 막내딸은 열이 받쳐 백일 동안 드러누웠는데, 죽어 새몸이 된다. 머리로 두통새, 눈으로 흘깃새, 코로는 악심새, 입으로 헤말림새”⁹⁾

위의 부분들도 동물의 습성을 경험적으로 관찰한 뒤 인간의 전생과 연결시켜 사유하였음을 보여준다. 과양생이 부부가 악하였기 때문에 그 몸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해치는 모기 각다귀일 것이고, 서수왕 막내딸은 죽은 원혼으로 농경신이 된 자청비를 시기하여 곡식을 쪼아먹거나 두통을 안겨주거나 부부 살림 따위 결연을 분산시키는 헤말림새가 되어 사람들에게 온갖 괴로움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삼공본풀이에서 집에서 내쫓기

8) 현용준·현승환의 『제주도무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278-279쪽을 참조하여 발췌 요약.

9) 현용준·현승환의 『제주도무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64쪽, 251쪽을 참조하여 발췌 요약.

게 된 가문장아기에게 못되게 군 언니들이, 청지네와 말뚝버섯으로 변하였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위의 예들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물의 생태학적 습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것은 자기자신을 중심으로 주위의 자연과 우주를 인식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사유방식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커지거나 새로운 자연물을 접하게 되면서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사유하는 원형적인 사유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Ⅲ. 식물들이 갖는 상징

1. 지상계와 천상계를 잇는 매개체

천지왕본풀이에 보면 “박씨 두 개를 주어 ‘아들이 나(천지왕)를 찾거든 정월 초해일(初亥日)에 박씨를 심으면 알 도리가 있으리라’하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부분이 나온다. 박씨는 얼마 안돼 움이 돌아나 덩굴이 하늘로 죽죽 뻗어 올라갔고 대별왕 소별왕은 그것을 타고 천상세계로 올라간다.

민간 신앙의 숭앙의 대상이었던 토렘물에서 당산(堂山)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나무나 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여기서 소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상수리 나무, 잣나무, 대나무 등의 당산 나무는 천상계와 지상계를 잇는 매개체로 제천의식의 제단이었고, 풍요(豊饒), 장수(長壽), 생산(生産)을 의미하였다. 단군신화에서도 환웅이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왔다고 전해지면서, 신단과 나무(신단수)는 신의 강림처로 신성시되며 신과 인간의 통로 구실을 한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박씨’는 지상계와 천상계를 잇는 매개체인 동시에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한다. 이는 특히 <홍부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홍부가 선행 끝에 얻은 박씨와 놀부가 악행으로 얻은 박씨는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각각 복과 재앙의 씨인 셈이다. 박씨는 안에 있는 다양한 성질의 생명을 품어 하늘로 뻗어오르며 커다란 박으로 자라난 다음 안에 품은 것을 밖으로 일시에 분출하여 그 존재의 본질을 드러낸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지왕이 부인에게 준 박씨는 나중에 대별왕과 소별왕이 자라서 덩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나이가 되면 알게 될 자신들의 존귀한 부계 출생의 비밀을 상징하며, '박씨'의 자라남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별왕 대별왕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까지 두 형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된다. 두 형제가 충분히 자라자, 박씨는 덩굴을 자라게 하여 두 형제로 하여금 덩굴을 타고 올라가 새로운 세상에 도달하게 해줌으로써 스스로 큰 존재로 거듭나게 만든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함께 산 세월은 자궁, 박씨덩굴을 타고 올라가 아버지를 만나고 해를 쏘아 세상을 구한 것은 자궁 밖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덩굴은 <재과 콩나무>에서처럼 신비한 세계로 인도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해준다. 신화 속에서는 끝없이 뻗어나가는 식물을 매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까이 가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판타지소설에서의 현실 세계와 현실밖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문, 빗자루, 통로 등)도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2. 생명력과 부활, 회구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이 벌이는 수수께끼 시합의 내용은 '나무 가운데 사시사철 잎이 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은유적 물음과 '동산의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잎이 무성한 것'을 묻는 것이다. 이 내용 역시 식물과 관계된 것으로 자연의 속성에 관계가 있다. 이는 생명에 대한 세심한 관찰 속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에서 풀과 인간의 털(毛)이 똑같이 자라난다는 점을 떠올려 동일한 속성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자연의 이치를 살피고 이해하는 대응 능력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신화적 사유체계에서는 꽃이나 식물은 부활을 경험하는 생명체로써 생명의 신비를 나타낸다. 땅속에 묻혀 있던 씨는 그 형태가 완전히 허물어져 죽으면서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하는데 이때 땅 위에 나타난 싹 그리고 꽃은 그 전의 형태인 씨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꽃피우기 경쟁을 하면서 ‘잠을 자는 것’은 식물이 땅에 묻힘(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틔운다는 점에서 ‘잠’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을 위한 내적 준비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식물이 싹트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도 볼 수 있다.

차사본풀이를 보면 그것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과양생이 부부가 욕심 때문에 삼형제를 살해해서 주친강 연화못에 수장한 지 일주일이나 지나자, 삼색꽃이 떠 있어서 이 꽃들을 꺾어서 집에 걸어두었더니 이 꽃들은 과양생이가 지나갈 때마다 과양생이 머리를 쥐어뜯었다”고 나온다. 그 꽃들을 청동화로에 놓고 태우자 꽃들은 구슬로 변하고, 이 구슬을 갖고 놀다가 과양생이는 삼키게 되었는데, 그후 잉태하여 아들 삼형제를 낳았다는 부분이 나온다. 이 이야기는 생명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다. 삼형제가 꽃에서 구슬을 거쳐 다시 삼형제로 부활하는데 있어서 꽃이 갖는 재생의 의미가 사용된다.

또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에서 꽃피우기는 문화적 단계도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연적 채취의 단계에서 농경정착의 단계로 전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식물의 재배는 시간의 복잡성도 함축하고 있다. 즉 씨→꽃→열매라고 하는 과거→현재→미래의 단계가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신화적 시간의 미분화성에서 분리된 시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¹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을 관찰한 사고의 결과로서 자연에서 문화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주는 신화소라 할 수 있다.

제주신화에 등장하는 꽃은 자연계에 실재하는 꽃들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상상의 꽃이 특히 많다. 상상화들이다. 자연계에서 볼 수 없는 상상의 꽃 이름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이공본풀이 나오는 사람을 죽여 멸망

10) 김현선, 앞의 책, 167-168쪽.

시키는 '수레멜망악심꽃',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환생꽃', 仰天(양천) 웃음을 터지게 하는 '웃음웃을꽃', 싸움꽃 등이 그것이다. 또 차사본풀이에 보면 과양생이 부부가 삼형제를 살해해서 주천강 연화못에 수장한지 일주일 지나자 핀 꽃들은 '병성병성 웃는 꽃, 슬프게 우는 꽃, 화를 내는 꽃' 이렇게 삼색꽃으로 나온다. 이 꽃이름들은 세상사에 대한 회구와 인간적 감정을 담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상상화는 인간이 회구하는 삶의 모습이나 혹은 한을 담고 있다.

무속에서의 꽃은 생명을 재생하고 주술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 그 생명력이 무한히 지속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초목들에게 인간세계를 초월한 힘이 있고, 그 핵심에 생명의 회생을 약속하는 꽃이 있다. 제주신화에서 이러한 꽃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는 꽃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은 아름답고 생동감 있고 끊임없이 생성해 낸다. 여러 가지 고운 빛깔을 가진 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목의 내부에서 나오며, 열매를 전제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생성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를 가장 잘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꽃을 생각하였고 여러 가지 신성한 의미와 염원을 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3. 생과 사를 통합하는 사유

꽃가꾸기 경쟁에서 소별왕이 천지왕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승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고대 제주인들의 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죽음을 삶과 대립되거나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유한한 삶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저승이라는 신화적 공간을 만들어 내고, 삶의 연장선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고자 했다. 태초에 귀신과 생인의 구별이 없었다는 것이나 인간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었다는 신화소 등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인간이 죽어서 가는 저승은 그 곳이 하늘에 있든, 저승에 있든, 바다에 있든지 신화적인 공간상에 위치해 있으며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해준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갖게 되는 분노와 억울함 등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모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살이가 끝나고 찾아갈 대별왕이 정리해 놓은 저 세상은, 거꾸로 섰던 일이 바로 잡히고 상처받는 생명이 부활을 준비하는 곳, 새롭게 피워낼 희망의 상징으로도 읽힌다.

IV. 동물들이 갖는 상징

태초에 인류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동물과 싸워 자신과 종족을 보존해야 했으며, 사냥에 의해서 식생활을 해결해야 했다. 그러므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물은 삶에서 뗄 수 없는 대상이었던 셈이다. 제주신화에는 자주 등장하는 동물로는 닭, 강아지, 거북, 소, 돼지, 뱀 등 제주의 산과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이다. 이들의 등장과 개입은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중요하다. 신화 속 동물들이 어떤 상징을 띠고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1. 신의 안내자 역할

이 지상에 사는 인간들과 신은 어떻게 소통할까? 신이 직접 인간과 소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내자를 통해 소통한다. 안내자는 일종의 신의 심부름꾼으로 인간(심방)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다. 제주신화에서는 특히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진 존재로서 동물이 등장하여 신과 인간을 매개하거나,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의 뜻에 따라 주인공들을 돕거나 시련을 주는 시험대 역할도 한다.

‘초공본풀이’에 보면 조지명왕 아기씨(젯부기 삼형제의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나 시련을 당할 때 아기씨가 키우다가 죽은 백강아지가 도와준다. 아기씨에게 다시 어려움이 닥치자 백강아지가 이번에는 거북사자로 변신

해서 일행을 도와주고, 이윽고 천황새 지황새, 인황새가 날아와 도와준다. 여기서 '백강아지'는 이승뿐 아니라 저승에서도 인간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가 인간과 같이 생활하는 데서 오는 친숙함과 함께 인간의 감각능력을 넘어선 부분까지 인지하는 개의 청각과 후각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의 매개자로서 자연스럽게 연상하였을 것이다.

'이공본풀이'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 제인장자는 원광아미에게 깊은 산속에 발을 만들어 좁씨를 뿌리라고 하자 산돼지가 나타나 도와주고, 또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시련을 당할 때 개미떼가 도움을 주고, 세 신선에게서 백록사슴을 타고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백록사슴'은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며, 험한 길을 넘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련을 겪는 주인공을 돕는 데 신의 대리자로서 동물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주인공의 간절한 염원이 동물들에게 주인공과 동일시를 일으킨 것이다.

동물들은 신을 대신해서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도 한다. 차사본풀이'에서 강림이 염라왕에게 이승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하자 '백강아지'를 내준다. 백강아지는 행기뭇에 다다르자 강림의 목 앞부분을 물고 풍덩 빠졌는데, 강림이 눈을 떠보니 이승이었다. 여기에서 백강아지는 저승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로 작용한다. 강아지뿐 아니라 차사본풀이'에서 저승차사 강림의 심부름꾼으로 나오는 '까마귀'도 그런 역할을 한다. 까마귀는 신화 속에서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적패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죽음의 사자'로 형상화된 것이다.

2. 돼지-제의와 생산성, 식성 갈등

2-1. 재산과 힘, 제물을 상징하는 소

제주신화 속에서 소는 일차적으로 재산과 부 혹은 힘을 상징한다. 이공본풀이'에서 원광아미가 자신의 청을 거절하자 화가 난 제인장자는 아들인 할락궁이에게 '낮에는 소 50마리를 몰게'하며 고되게 일을 시키는 장면이 나

온다. '세경본풀이'에도 자청비가 하인 정수남에게 나무를 해오라고 하자, “소 아홉 마리, 말 아홉 마리와 도끼, 적삼을 차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

할락궁이와 정수남가 가진 힘(능력)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소가 등장한다. 50마리 혹은 아홉 마리를 몬다는 것은 범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주인공(가든장아기, 조지명왕 아기씨 등)이 쫓겨날 때 동행하는 존재로 소가 등장한다. 이것은 소가 여주인공의 힘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수행해 준다고 하겠다.

송당 본향당본풀이에 보면 남편이 이웃집 소를 잡아먹어서 끝내 갈라서서 는 이야기의 화소가 등장한다.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은 생산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소는 아주 훌륭한 일꾼인 것이다. 그러나 소를 잡아먹는다면 생산력의 저하 혹은 상실을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는 농경문화와 목축문화가 상충하는 사회적 갈등을 반영한 것이며, 농경문화로의 이행단계임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로마문화에서는 해가 바뀔 때 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그 피는 여성인 대지를 비옥하게 만들고 땅에 생명을 되돌려주는 남성적 본질을 상징했다. 제주신화에서도 돼지와 함께 소가 제물로 사용되어졌다. 송당 본향당본풀이에 보면 문곡성은 하라영산에 좌정하고 나서 “돼지 온 마리, 소 한 마리나, 닭이라도 온마리, 온갖 바닷고기라도 온마리로 머리 온전한 제속으로 나를 받들어라.(중략) 그렇게 하면 너희들 효심을 봐서 만민자손을 돌봐 준다”¹¹⁾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이처럼 제주신화 속에서 소는 돼지와 함께 제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농경사회에서 소가 돼지와 함께 풍요의 제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시풍속과 놀이에도 소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제물로 등장하며, 삼한 시대에는 소의 발굽으로 국가의 중대한 일을 짐치기도 하였다(‘후한서’ 동이전에 전쟁 때 희생으로 바쳐진 소의 발굽이 붙어 있으면 길하고 갈라져 있으면 흉으

11)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북제주군추진협의회, 『북제주군 성당리 조사보고서』, 2004, 124쪽.

로 점쳤다. 이 제사에서 소를 제물로 받쳤다). 이는 소가 농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제물로써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¹²⁾

2-2 제주신화 속에 나타난 돼지고기와 식성 갈등

이에 비해 돼지는 목축사회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풀이에 등장한다. 세화본향당 본풀이 중 '금상님본풀이'에 보면 금상님이 좌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나온다.

열두 바다를 건너 제주로 들어올 때, 사수도를 건너서 한라산을 향하여 오는데, 소섬 목우개에 잠시 머물러 상세화리를 향하여 들어가려고 합니다. 천자님이 나서서 보고 외국 장수가 들어노는 듯하므로 “푸우”하고 입으로 불어버리니, 여우가 달아나듯 배가 불려 나갑디다. 다시 바람을 만나 세화리 앞에 와서, 두 돛대를 잡고 닻을 내려서 종선을 둘러타고 세화리로 가 내립니다. (중략)

“어찌 하여 왔느냐?”

“천기를 짚어 떠보니 소장과 백주가 천정배필이 될 것이므로 찾아 왔습니다.”

천자님이 말씀하되,

“그러면 너는 무슨 음식을 먹느냐?”

“술도 장군 먹습니다. 떡도 장군 먹습니다. 밥도 장군 먹습니다. 돼지도 전마리 먹습니다.”

“뉘, 더럽다. 어서 나가거라. 우리와 같이 좌정하지 못하겠다.”

금상님이 할 수 없이 뒷머리를 손으로 쓸면서 올래로 나아가니 백주님이 앉았다가 말씀하되,

“저기 가는 저 장수, 나하고 천정배필이면 먹던 음식을 참고 천정배필을 맺어보십시오.”¹³⁾

12) 고훈, 앞의 논문, 2004, 66쪽.

13)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357-359쪽.

금상님이 좌정하려 할 때 천자님이 온 연유를 물은 다음 두 번째 묻는 말이 식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말을 했고, 그 때문에 거절당할 뻔하였으나, 음식을 참는 조건으로 금상님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백일이 지나자 금상님이 피골이 상접하여 죽을 지경이 되자 백주님이 천자님께 그 사실을 아뢰고 “천자님과 소녀가 한 상을 받고, 금상또는 따로 상을 차려서 돛제법(豚祭法)을 행하자”고 제안한다.

김좌수는 돼지 머리에 물을 끼얹고 왼쪽 귀를 조금 끊어 제물로 쓸 돼지임을 표시해 놓고, 그 돼지를 잡아 제를 지냅니다. 천자님과 백주님은 다른 한 상을 차려 정과나 백돌래 백시루떡 낫그릇의 메 청감주 계란 안주로 먼저 상을 받고, 금상님에게는 따로 상을 차려 술도 장군 밥도 장군 떡도 장군 차려놓고, 후원으로 나가서 청소새를 베어 갈아 돼지를 잡을 때 털 바치고, 피 바치고, 발톱 바치고, 수육으로 삶아 열두 뼈를 하나씩 감상하고 열두 반기에 뼈 집없이 올려 제를 지냅니다.¹⁴⁾

백주또의 상차림과 금상또의 상차림이 묘사된 장면을 읽으면, 백주또의 상은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금상또는 형식없이 푸짐하게 차린 상차림이 연상된다. 제주신화 본풀이 가운데 남녀간의 갈등과 헤어짐이 간혹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어김없이 식성차이로 인한 것이고, 돼지고기가 주된 소재가 된다. 궤네깃당본풀이에서는 소를 잡아먹은 것으로 인한 백주또와 소천국의 갈등이 벌어지지만, 월정본향당본풀이에서는 돼지 발자국의 물을 빨아 먹다가 돼지털이 콧구멍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별거하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은 미식(米食)과 육식(肉食)의 음식문화적 갈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은 하지만, 신들은 서로를 영역을 나누어 좌정하는 것으로 본풀이는 전개된다. 이는 곧 미식문화와 육식문화가 갈등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낫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메’도 필요하지만, 목축인들에게는 금상또처럼 푸짐한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는 신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본풀이는 미식신의 입장에서 전개된다. 육

14)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361쪽.

신신은 당당하지 못하고 미식신에게 ‘미개하고 더럽다’는 말을 들으며 갈라서자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신화는 농경문화인 미식문화를 좀더 우위에 놓고 사고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본풀이에 육식문화와의 갈등이 자주 부각되고 나중에 돛제법이 나오는 것은 두 문화가 서로 침투해 가고 혼용 혹은 인정되는 과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식성의 변화와 혼용의 핵심에는 임신한 여신이 등장한다. 토산일뿔당본풀이¹⁵⁾ 등을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미식 신이던 여신은 임신하면서 돼지고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맛보았고, 쫓겨났으나, 나중에 많은 자식을 낳는 것으로 된다. 실제로 임신하였을 때 문화적으로 금기시되던 음식을 먹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돼지란 동물이 상징하는 다산성에다가 돼지고기가 임신한 여성에게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 ‘다산’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므로, 임신한 여성에게는 육식이 허용되다가 점차 일반사람들에게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¹⁶⁾

2-3 돼지, 식량원에서 제의와 신의 사자까지

돼지가 문화적 표상으로 한반도에 기록된 것은 선사시대부터인 것으로 추정한다. 대곡리 암각화에 중요한 식량원이었던 멧돼지가 새겨져 있다. 멧돼지의 그림이 사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당대인들의 좋은 사냥

15) 실제 본풀이에서는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먹다가 돼지털이 코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전개되지만, 그것은 그만큼 금기시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 이렇게 본풀이에 나오는 화소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미식문화가 발달하였던 공동체에서도 돛제법으로 의례를 지낸 뒤, 공동체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마음껏 먹고 즐기는 것이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는 면이 컸으므로 하나의 문화로 점차 허용되고, 자리잡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음식문화의 변이는 제주 전 지역에서 같은 속도와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육식을 금기시하는 폐쇄적인 공동체도 있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회천지역처럼 육식을 허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는데도, 본풀이에는 여전히 미식신이 이야기가 우세하게 남아 있으므로 본풀이에서는 금기시하지만, 제사 등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는 육식을 하는 등 신과 단골들의 삶이 분리된 형태로 더디게 진행된 지역도 있는 것이다.

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멧돼지는 자웅이 교미하는 것, 사냥꾼과 대결하여 공격하는 자세 등을 사실적으로 조각한 기법으로 매우 생동감있게 표현하였다.

또 신라의 토우에서도 멧돼지모양이 다른 동물형 토우보다 수량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냥길에서 잡혀오는 멧돼지가 말 잔등에 실려 있는 모습, 사나운 등줄기에 돌돌 말려 올라간 꼬리 모양, 가름한 얼굴에 나팔처럼 푹 볼거진 입 모습, 두 눈과 두 개의 콧구멍을 꼭꼭 눌러 짝은 멧돼지, 곤두 세운 두 귀와 아래로 찢어진 두 눈 등 아주 작지만 멧돼지의 생태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¹⁷⁾

이처럼 출토 유물에서 돼지의 조상격인 멧돼지가 주로 출토되고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가축으로 길들여지기 이전에 야생의 멧돼지가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지』위서동이전 부여조에서 보면,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모두 육축(六畜)의 이름으로 관명(官名)을 정하여, 마가·우가·저자·구가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읍루조에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며 그 고기를 먹고 가죽은 옷을 만들어 입는다. 겨울철에는 돼지기름을 몸에 바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같은 읍루를 『전서』동이열전에는 숙신씨라는 명칭으로 그 풍속을 기록했는데, “소와 양은 없고 돼지를 많이 길러서, 그 고기를 먹고, 가죽은 옷을 만들며 털은 짜서 포를 만든다. …죽은 사람은…관을 만들고 돼지를 잡아서 그 위에 쌓아 놓고는 죽은 사람의 양식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또한 『삼국지』위지동이전 한조에도 “주호(제주도)에서는 소나 돼지를 기르기 좋아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약 2천년 전에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¹⁸⁾ 돼지를 중요한 가축으로 여겼으며, 돼지고기가 현세의 양식과 옷을 제공해 줌은 물론 내세에 먹을 중요한 양식을 상징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돼지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인 동시에 나라의 수

17) 이난영, 『신라의 토우』, 교양국사총서 22, 1976, 141-144쪽.

18) 천진기, 『한국미 동물의 상징체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도를 정해 주고, 왕이 자식이 없을 때 왕자를 낳을 왕비를 알려주어 대를 잇게 하는 신통력을 지닌 동물로 전해진다.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 제1 유리왕 편에는 도망간 돼지를 쫓아갔다가 산새와 지세가 뛰어난 곳을 발견하고 수도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고려사』 고려세계(高麗世系)에 태조의 조부 작제건(作帝建)의 이야기에 돼지는 좋은 명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삼국사기』권16 고구려본기 제4 산상왕 편에 보면 왕 7년 봄 3월에 왕에게는 아들이 없어 산천에 기도했더니, 꿈에 천신이 나타나 소후(小婁)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했다. 왕 12년 겨울 11월에 하늘 제사에 쓸 교시가 달아나자, 이를 맡은 사람이 쫓아가 주통촌(酒桶村)에 이르렀다. 좀처럼 돼지를 잡을 수 없었으나, 한 처녀가 잡아 주었다. 돌아와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니, 왕은 이상히 여겨 밤에 미복(微服)을 하고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 관계한 후 왕 13년 9월에 아들을 낳았다. 교시의 인연으로 왕이 처녀와 상관하게 된 데서 아들의 이름을 교제(郊歲)라고 하였다. 이 아들이 뒤를 이은 동천왕(東天王)이다.

돼지는 또한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한 신성한 제물이기도 했다. 고대의 문헌들 속에서도 돼지를 제물로 사용한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로 교시(郊豕)에 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온다.¹⁹⁾ 제전에서 돼지를 는 풍속은 고구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깊은 민속이다. 수렵이나 농경사회에서 돼지는 자연의 풍요와 부의 상징으로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돼지는 이처럼 신에게 바치는 희생물인 동시에 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使者)의 모습의 신통력을 지닌다.

이러한 생각은 상서로운 길상의 상(像)으로 우선 돼지를 떠올리게 될 정도로 일반화되어 갔다. 민속에서 돼지는 재산이나 복의 근원이며, 돼지꿈

19) 유리왕 19년 8월에 교시가 달아나므로 왕이 탁리(託利)와 사비(斯卑)라는 자로 하여금 뒤를 쫓게 하였더니 장옥택(長屋澤) 중에 이르러서 돼지를 찾아 각근(脚筋)을 끊었는데, 이 사실을 왕이 듣고, '제천(祭天)할 희생을 어찌 상할 것이냐' 하고 두 사람을 갱중(坑中)에 넣어 죽였다.

은 길몽(吉夢)중의 최고이다. 용꿈이 비범한 인물의 탄생을 의미한다면 돼지꿈은 부의 상징이다. 복권 당첨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꿈이 돼지꿈이라는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돼지 저금통, 복돼지 등도 돼지를 부와 복의 상징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돼지는 하늘에 바치는 제물이었으며 신통력과 신의 사자로 인식되었는데, 제주신화에서도 그런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미식과 육식간의 식성 갈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돼지고기를 먹는 신을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미개한 부정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신화 속의 돼지고기를 둘러싼 식성 갈등은 농경과 수렵, 목축문화가 혼재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질서를 잡게 되었는지를 농경문화의 관점에서 재현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뱀- 풍농, 부활과 업, 치병

3-1 풍농과 부, 재생을 표상하는 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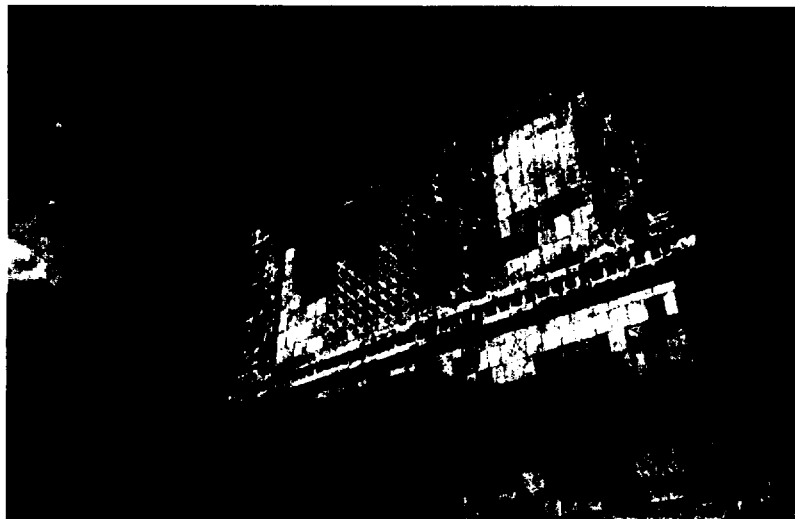
‘차사본풀이’에서 “뱀은 죽는 법이 없고 아홉 번 죽어도 열 번 환생하는 법”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뱀은 성장하면서 여러 번 허물을 벗는데 이것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는 인식을 낳게 한 듯하다. 이러한 상징은 뱀의 생태와 관련이 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재생, 허물을 벗는 것은 환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습하고 풀이 무성한 대지를 기어다니며 허물을 벗어놓는 뱀, 남성의 남근을 닮은 뱀은 식물의 순환과 생명창조(다산)를 연상하게 한다. 뱀은 농경문화의 상징과 밀접하다. 이는 고대인들이 농작물의 순환과 생명창조를 뱀과 연결하여 사유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들은 더 나아가 풍작이나 물을 상징하는 신으로 뱀을 모시기도 했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풍농의 표상으로 뱀을 삼은 예는 찾기 어렵지 않다. 일본의 <구렁이 신부> 등 뱀 신부 설화에서 나타나는 뱀의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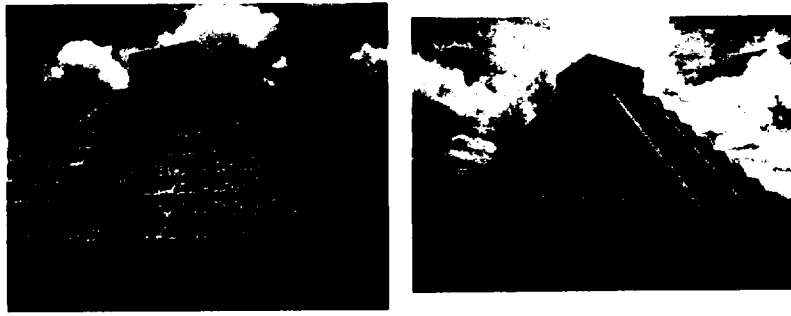
성으로서의 이미지는 물의 신으로서의 역할과 깊은 관련을 보인다. 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은 농업이었고 농업에 있어서 물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러한 물을 다스리는 신이 뱀이었으므로 사신(蛇申)은 농업과도 관련해서 널리 신앙되어 왔던 것이다. 결국 물의 신 또는 농업신은 생산의 신이고 생산은 바로 여성과 직결되므로, 뱀의 여성적 역할 내지 이미지는 바로 물의 신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귀결된다.²⁰⁾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치첸이사에 있는 '쿠쿨칸' 피라미드는 정상으로 오르는 계단의 입구 양쪽에 커다란 뱀머리 조각을 세워놓았을 뿐 아니라 뱀 몸통으로 상승하는 돌계단을 만들고, 꼬리로는 정상의 돌계단 들보를 꾸몄다. 이 피라미드는 마야인들이 종교의식을 올리는 제단이었다. 멕시코 신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뱀신인 '퀘찰코아톤'이 풍우와 옥수수 농사를 관장하는 것과 연결하여 쿠쿨칸을 생각하면, 신화 속 이야기와 표상으로 삼은 피라미드 상징물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멕시코 우스말 수도원 벽면, 뱀의 신 '쿠쿨칸'과 비의 신 '차몰'이 조각되어 있다.

20) 문명재, 『일본 설화문학 연구』, 보고사, 2003.



<그림 2> 치첸이사에 있는 ‘쿠쿨칸’ 피라미드

캄보디아 일대를 지배했던 크메르 왕조가 세운 왕실사원인 앙코르와트 유적에는 도처에 뱀과 관련된 조각상²¹⁾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벼농사를 일구었던 크메르인들은 인공저수지(바라이)를 만들었고 벼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며 거대한 뱀을 조각하여 상으로 만든 것도 마야인들이 만든 쿠쿨칸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아스타 고분에 그려진 중국신화를 표현한 <복희여와도>의 복희와 여와는 몸은 뱀과 같고, 머리는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다. 사람의 형상 중에 하나는 해와 달과 같은 큰 성덕을 베풀었다고 전하는 3황5제(三皇五帝)중 최고의 제왕으로 여겨지는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인 복희이고, 또 하나는 일월을 주관하는 창조신으로서 ‘여와’의 신격이다. 세상을 만들어낸 창조신과 성덕을 베풀 임금을 뱀의 형상으로 나타낸 것 역시 뱀이 농경사회에서 풍농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다.

21) 입구에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진 코브라 모양의 나가(Naga) 조각상.



<그림 3> 중국 아스타 고분 <복희여와도>

『삼국유사』에서 박혁거세가 죽은 뒤에 하늘로 승천한 후 신체가 다섯 토막으로 나누어져 땅으로 떨어졌는데, 큰 뱀이 나타나 토막 난 혁거세의 사체가 합쳐지는 것을 막았다고 나온다. 혁거세의 분해된 사체를 뱀이 왜 막았을까? 죽은 신체가 흩어져 여러 곳에 뿌려질수록 풍요로운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큰 뱀이 합체를 막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혁거세의 토막난 사체를 사체화생(死體化生) 유형의 곡물기원 신화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큰 뱀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다섯 덩이인 까닭은 모든 곡물을 상징하는 오곡(五穀)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²²⁾

『삼국사기』나해이사금에 등장하는 사흘 운 뱀²³⁾은 또한 풍농의 상징으

22) 곡모신(穀母神)의 성격을 지닌 어머니가 날려보낸 비둘기를 쏘아 주몽이 얻은 것도 오곡의 종자였다.

23) 실제 기록에 보면, “34년 여름 4월, 뱀이 남쪽 창고에서 사흘 동안 울었다. 가을 9월, 지진이 있었다. 겨울 10월, 눈이 크게 내려 다섯 자나 쌓였다. 35년 봄 3월, 왕이 붕어하였다.”고 되어 있다.

로 읽을 수 있다. 이 뱀 역시 이후 추수를 해야 할 가을에 지진과 많은 눈으로 인해 흉작이 될 것과 왕의 죽음이라는 불행을 뱀을 통해 암시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외 설화에서 뱀은 신이한 남성의 역할로서 등장하여 인간 여성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²⁴⁾ 『삼국유사(三國遺事)』 제2권 기이(紀異)편에 수록되어 있는 지령이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견훤설화나 역시 『삼국유사』에 기록된 서동과 선화공주 설화(백제 30대 무왕이 자기 어머니가 연못에서 나온 용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이라 이름을 서동이라 했다)에 언급된 서동의 출생이 그것이다. 백제사회에서 뱀은 남근을 상징하는 신이한 생명창조의 존재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뱀은 지역이나 문화권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수호신으로 모신 반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주로 악마의 사자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농경문화권과 유목 문화권의 영향이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제주신화 속의 뱀의 상징

농경문화의 상징으로서 뱀이 재생과 환생, 풍농 그리고 신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제주신화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제주신화에는 여기에다가 치병의 기능까지 더해진다.

‘칠성본풀이’²⁵⁾에 보면

- ①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 부부의 딸 아기씨가 일곱살이 되었을 때 부모가 벼슬을 살리 가게 되어 여중에게 맡겨진다. 아기씨는 물 길러 간 여중을 찾으러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맨다.

24) 이를 뱀 신랑 설화, 야래자(夜來者) 유형의 설화라고 한다.

25) 현용준·현승환의 『제주도무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282-297쪽을 참조하여 요약.

- ② 지나가던 중 가운데 세 번째 중이 아기씨를 데리고 다니며 잉태를 시키고 장설룡의 집 노뎃돌 밑에 묻어둔다.
- ③ 부모가 나중에 이를 찾고 보니 일곱 아기를 배고 있으므로 석함에 담아 띄워버리니 이 석함은 제주도 함덕의 일곱 잠수가 발견하여 서로 자기가 주웠다고 다투는데, 한 남자 이것을 보아 중재하고 석함을 열어보니, 뱀 여덟마리가 들어 있으므로 징그럽다 하여 내던진다.
- ④ 그 후로 일곱 잠수와 남자는 신병이 나서 사경을 헤매게 된다. 문점을 하니 남의 나라에 온 신을 박대한 죄라 하여 굿을 하여 위하니 병이 낫고 부자가 된다.
- ⑤ 이웃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칠성당을 만들어 위하니 함덕 마을은 부촌이 된다.
- ⑥ 뱀들은 다시 함덕 마을을 떠나 성안으로 들어오니, 칠성골 송대장 부인이 보고 집안으로 모셔가니 그 집은 일시에 거부가 된다.
- ⑦ 관원이 지나다가 뱀들을 보고 더럽다 침을 뱉으니 관원은 입병이 난다. 문점을 하고 굿을 하니 병이 낫는다.
- ⑧ 뱀들은 각기 차지할 곳을 정하여 송대장 집을 떠나 좌정한다. 그 중 한 마리는 집 뒤의 '주쟁이' 속에 좌정한 밧칠성, 한 마리는 고팡에 좌정한 안칠성이 된다.

위 이야기를 보면, 금기를 어긴 아기씨는 남자로부터도 버림받아 노뎃돌 밑에 갇히고, 부모로부터는 석함에 갇히게 되는 두 번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 갇힌 공간 속에서 아기씨는 뱀이라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 아기씨는 인간이었을 때는 수동적인 존재였으나, 뱀으로 변모한 후부터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로 외형뿐 아니라 성격도 탈바꿈된다. '뱀신'의 은혜베품(풍농)과 저주라는 두 가지 양면성은 본디의 모습과 바뀐 모습, 두 존재에 대한 부분적 드러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뱀신들은 대부분 자신을 잘 모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질병 등 재앙을 주고, 자신에 대한 신앙의 정도에 따라 은혜가 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보통 향아리나 치마로 모셔서 들어온다.

칠성본풀이에서는 여자가 뱀으로 둔갑하였으나, <도산 여드렛당본풀이>에는 여자⇒천구아구대맹이(뱀)⇒금바둑돌, 옥바둑돌⇒여자⇒뱀으로 자유자재로 둔갑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뱀의 둔갑이 반드시 여성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김녕사굴의 뱀 이야기를 보면, 마을에서 오랜 동안 처녀를 바치는 풍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설에서의 뱀은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에 가까운 난폭한 악신으로 자리한다. 김녕사굴 전설에 나오는 뱀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다섯 섬들이 항아리만큼이나 몸통이 컸다고 전해온다. 이 뱀에게 매년 처녀 한 사람씩 제사에 올려 큰굿을 했다. 만일 이 굿을 하지 않으면 그 뱀이 나와서 이 밭 저 밭 할 것 없이 곡식 밭을 다 밟아 휘저어 버려서 대흉년이 들게 했다.

어린아이나 처녀 등 순결한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것도 악신의 전형적인 형태라 볼 수 있다. 이 뱀은 죽은 다음에도 자신을 처치한 판관을 뒤따라가서 피비가 되어 그를 죽게 한다. 신화에 등장하는 뱀신과 다르게 김녕사굴 전설에서의 뱀은 원혼이 깊고 사악해서 그 원한을 마지막까지 풀지 못하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김녕사굴 전설에서는 일반적인 뱀신이 갖는 선(은혜갚음)과 악(원한을 품)의 양가성 가운데 선에 해당하는 치유적 기능은 사라지고, 원한에 맺힌 위협적인 이야기만 남아 있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칠성본풀이 본풀이 말미에 보면 뱀들은 일정한 신격화 과정을 거쳐 좌정하게 된다. 이는 신으로서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아기씨와 일곱 자식들은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 중에서도 ‘고팡’, ‘주쟁이’는 부엌물품, 종자, 곡식, 추수한 농작물을 보관하는 저장공간이다. 이는 집안의 부와 연결된다. 고팡이나 주쟁이의 기능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는 것은 뱀신의 여러 가지 능력(치병) 가운데도 집안의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서의 기능이 으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뱀이 재물과 부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나타날 때 뱀은 여성성을 상징한다. 이는 여성을 생산적 능력과 맞물려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해 왔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성으로 변신할 수 있는 뱀이 재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표현된 것이다.

<칠성당본풀이> 외에도 <내도 두레빌렛당신풀이>, <토산 여드렛당신풀이>, <나주 기민창 조상본풀이> 를 보면 뱀신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존재이다. 외형적 해를 가하거나 복을 주는 존재인 뱀은 외부에서 온 신령스런 존재로 부각된다. 이들은 자연재해를 통해 염력을 입증하기도 한다. 외부에서 온 존재가 집안의 부와 마을의 안녕을 결정하는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외부 공간에 대한 지향, 긍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내부공간의 질서가 외부 공간에서 온 존재에 의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²⁶⁾ 특히 바다 건너 온 신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풍부한 나라, 인간 생활에 복리를 주는 나라, 바다 건너 낙토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²⁷⁾ 섬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문화에 대한 수용이 강해지는 것이다. 뱀을 외부에서 온 신격화된 존재로 상정하였다는 것은 외부에 대한 개방성과 기대를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제주신화 속 뱀신의 상징 가운데 사람의 멧힌 원혼을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풀어주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뱀신이 등장하는 본풀이에서의 문점은 원혼들을 통해 사라지지 않는 한맺힌 마음과 재생을 병의(憑依)를 통해 이야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격렬하게 업이나 전생담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서 멧힌 마음을 푸는 치병의 신으로서의 기능인 카타르시스의 효과도 컸을 것이다.²⁸⁾

26) 윤명철, 『한민족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2003, 209-249쪽.

27)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208쪽.

28) 뿐만 아니라 제주신화에서 뱀은 비와 바람을 일으켜 농경을 주재하는 용과 같은 상징성을 띠기도 한다. 현용준의 사신신앙에 대한 연구를 보면, 당본풀이에서 뱀신의 성격은 ① 농경신적 성격이 짙다. 곡신이지만 곡식의 풍요는 풍농에 있으므로 그렇게 볼 수 있다. ② 이들 당신은 조상신으로 숭배되어 오다가 당신으로 된 것이다. ③ 신의 형태는 뱀이거나 황구렁이 또는 회색 뱀으로 나타나는데 본래의 특수한 모양의 뱀을 용과 동일시하여 풍농신으로 위하였던 듯하다. ④ 토산여드렛당의 경우 邪神(사신)의 한을 풀어주고, 뱀을 생기있게 재생시켜 고팡으로 모시는 극적 행위의 유감 주술 의례를 한다. 이때 뱀을 용과 동일시하여 아팡주를 물려 모시는 사신신앙을 잘 말해 주는 것이다. ⑤ 특히 토산 여드렛당은 딸에서 딸로 母系繼承함이 강조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현용준, 『제주도무속과

이러한 뱀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뱀의 이미지인 간사하고 사악한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뱀은 성경에서도 등장할 정도로 수천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서 무섭고 징그럽고 간교하고 사악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농경문화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신성하고 신비로운 재생과 부, 치병의 상징으로 생각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닭 울음소리, 축귀와 신의 계시

제주신화 '천지왕본풀이'에서 닭은 천지인을 관할하는 신격으로 등장한다. 닭의 울음은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다가옴을 알린다. 여기서 닭의 울음은 아침이 밝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이 끝나고 새날, 새 세상이 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새벽(빛)을 알리는 이런 행위 때문에 닭은 '신성조'로 여겨진다.²⁹⁾ '천지왕본풀이'나 '이공본풀이'에서의 닭 울음소리는 새벽이 오는 것을 보고 밤을 지배하던 귀신들도 물러가는 것, 즉 축귀의 상징이며, 더 나아가 암흑과 혼돈에서 태초의 아침이 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닭 울음의 의미는 제주신화 속에서만 작용한 것은 아니어서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새해에 닭이나 호랑이, 용을 그린 그림을 벽에 붙이는 풍속이 있었는데, 닭이 귀신을 쫓는 축귀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는 보이지 않는 소재를 알아내는 주술적 영험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⁰⁾ '이공본풀이'에 보면, 사라도령과 임신한 원강암이가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에 원강암이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억새포기에서 밤을 새는 중에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 부분이 나온다. 원강암이는 그 소리가 어느 집에서 나는 것인지를 묻고 그 집에 가서 종이 되기를 청한다. 그 집은 제인장자 집이었다. 사라도령에게 혼자 서천꽃

그 주변』, 집문당, 2002, 437-438쪽)

29)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1992, 동아출판사, 197쪽 참조.

30) 김알지의 탄생도 흰 닭의 울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밭으로 떠나게 한 다음 원강암이는 그 집에서 할락궁이를 낳는다. 원강암이는 제인장자 집에서 온갖 횡포와 시달림을 당하지만, 할락궁이가 15세가 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른다. 원강암이는 어떻게 일체의 흔들림없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녀에게 그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할락궁이의 출산과 양육을 앞두고, 걱정이 많던 그녀에게 새벽녘에 들린 닭의 울음소리는 머물 곳을 알려주는 신의 계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주신화 속의 닭은 축귀뿐만 아니라 신의 계시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이상을 통해 제주신화 속에 등장하는 식물과 동물들의 상징을 통해 제주인들의 의식과 무의식적 저변을 알아보았다.

제주신화를 살펴보면 이 땅에 어떻게 생명의 출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동식물의 생태학적 습성을 인간의 전생과 연관시켜 자연물의 기원이 인간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사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신화에서 발견하게 되는 악한 사람은 인간에게 해악을 주는 동물로 태어났다는 사고 등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삶의 반경이 커지거나 새로운 자연물을 접하게 되면서 주변의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사유하는 원형적인 사유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앞의 논의에서 식물들이 갖는 상징과 동물들이 갖는 상징을 나누어 살펴해보았는데, 먼저 식물들이 갖는 상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계와 천상계를 잇는 매개체라 할 수 있는데, 박씨, 신단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특히 제주신화에는 자연의 신비를 가장 잘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상상의 꽃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성한 의미(생명력과 부활)와 인간 감정과 염원을 상징한다. 셋째, 꽃가꾸기 경쟁 등을 통해 죽음을 삶과 동떨어진 것이나 대립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상처받은 생명이 부활을

준비하는 곳, 새롭게 피워낼 희망의 상징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신화에 많이 등장하는 동물로는 돼지, 뱀, 닭, 개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신화에서 의미있게 등장하는 동물들의 상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신화 속에서 인간은 강아지, 거북 등의 동물을 통해 신과 소통하였다. 동물들은 일종의 심부름꾼으로 신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 안내자는 인간(심방)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다. 제주신화에서는 특히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진 존재로서 동물이 등장하여 신과 인간을 매개하거나,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의 뜻에 따라 주인공들을 돕거나 시련을 주는 시험대 역할도 한다.

둘째, 소와 돼지는 제의와 생산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하며, 특히 돼지고기는 미식(米食)과 육식(肉食)의 음식문화적 갈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은 하지만, 신들은 서로를 영역을 나누어 좌정하는 것으로 본풀이는 전개된다. 이는 곧 미식문화와 육식문화가 갈등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셋째, 뱀은 부활과 업, 치병을 상징한다. 뱀은 ‘뱀신’의 형태로 은혜베품(풍농)과 저주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는데, 둔갑을 통해 본디의 모습과 바뀐 모습, 두 존재에 대한 부분적 드러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뱀신들은 대부분 자신을 잘 모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질병 등 재앙을 주고, 자신에 대한 신앙의 정도에 따라 은혜가 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그것은 뱀을 통해 사람의 맺힌 원혼을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풀어주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뱀신이 등장하는 본풀이에서의 문점은 원혼들을 통해 사라지지 않는 한맺힌 마음과 재생을 빙의를 통해 이야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격렬하게 업이나 전생담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서 맺힌 마음을 푸는 치병의 신으로서의 기능인 카타르시스의 효과도 컸을 것이다.

신화 속의 이야기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해온 공동체의 집단무의식의 다양한 층위들이다. 상징의 산실이요, 원천인 집단무의식은 여러 가지 근원적 유형(원형)으로 구성되어지는데, 탄생시 이미 갖추고 나오는 무위식

의 층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인류 일반에게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부여하는 요소들이다.

제주신화 속 동식물의 상징을 통해 제주인들은 섬이 갖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생명활동을 해왔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상상의 꽃등을 통해 삶의 질곡적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슬프게 우는 꽃, 병싯 병싯 웃는 꽃, 화를 내는 꽃 등을 통해 고된 삶에서 오는 감정을 발산하거나 혹은 누그러뜨리거나 새로운 삶(환생꽃)을 꿈꾸었을 것이다.

뱀신 이야기를 통해서도 섬지역의 특성상, 고립되고 물질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뱀을 신격화하여 외부로부터의 물자 유입,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풍농과 치병, 외부 존재의 수용 등 섬사람들의 꿈꾸었던 삶을 대변하고 있다. 그것은 제주섬이라는 변방성이 갖는 특질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제주신화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소박하고 솔직한 아름다움이 있다. 미식과 육신의 갈등이나 대별왕 소별왕 경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는 공동체 통합적인 경향을 드러낸다. 이것은 의식에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하거나 의식에 편중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제주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질서적 측면이 신화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신화 속에는 제주인의 상상력과 문화, 제주 사회의 내재적인 규율과 법칙, 가치 체계가 모두 내포되어 있으며, 신화를 향유하는 집단의 미의식이 함께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 핵심어: 제주신화, 동물의 상징, 식물의 상징, 돼지고기와 식성 갈등, 뱀의 상징

<참고문헌>

- 고 훈, 「설화의 띠 동물상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김철준,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1975.

- 김태영, 「동물의 원형적 상징과 조형의식」,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로렌스 W. 자피, 「융심리학」, 교육과학사, 1985.
- 문명재, 「일본 설화문학 연구」, 보고서 2003.
-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북제주군추진협의회, 「북제주군 성당리 조사보고서」, 2004.
- 부영란, 「제주신화의 구조에 나타난 상징체계와 의미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이난영, 「신라의 토우」, 교양국사총서 22, 1976.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9.
- 장주근, 「제주도 무가와 서사무가」, 역락, 2001.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천진기, 「한국띠 동물의 상징체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 허남춘, 「제주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제148호』 2008.
- 윤명철, 「한민족 해양활동과 동이지중해」, 학연문화사, 2003.
- 황수로, 「한국 꽃 예술 문화사」, 삼성출판사, 1990.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현용준, 「제주도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Abstract>

Symbols of animals and plants that appear in the mythologies of Jeju Island.

Shin Hea-geum

From the prehistoric to modern times, the theme most mentioned in mythologies is man followed by animals, plant life and na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man. Mythologies need special symbols to accomplish their given functions and it is in these instances that animals and plants that can represent the symbols needed by mythologies naturally appear as characters in the stories enabling the mythologies to fulfill their functions as intended. Encapsulation of animals and plants that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humans based on perception from experience and enchanted imagination is a theme that has been repeated endlessly throughout cultural art from the beginning of the ages. In view of this, this paper takes a look at the functions and symbols of animals and plants that appear in the mythologies of Jeju Island.

First, they tell stories about the genesis of life and the origins of both animate and inanimate things. Second, symbols represented by plant life are intermediaries between earth and Heaven, life's vitality and reinvigoration, showing how and why life and death go together, and manifesting divine meanings and wishes through flowers that best express mysteries of the nature. And, third, symbols represented by animals include divineness, messengers of god, festivity, productivity,

resurrection, and vocation.

All subject matters making up mythologies are premised on creation of symbolic meanings and because of this convey the man's life and thinkings as an integrated whole. If we sought, we would find infinite stories of man, nature, and space in mythologies. In this sense, reading and studying of mythologies make possible a very meaningful study into an unknown world that is full of symbols and signs.

- Key words: mythologies of Jeju Island, symbol represented by animals, symbol represented by plant lives, symbolic meanings, the mythologies to fulfill their functions.